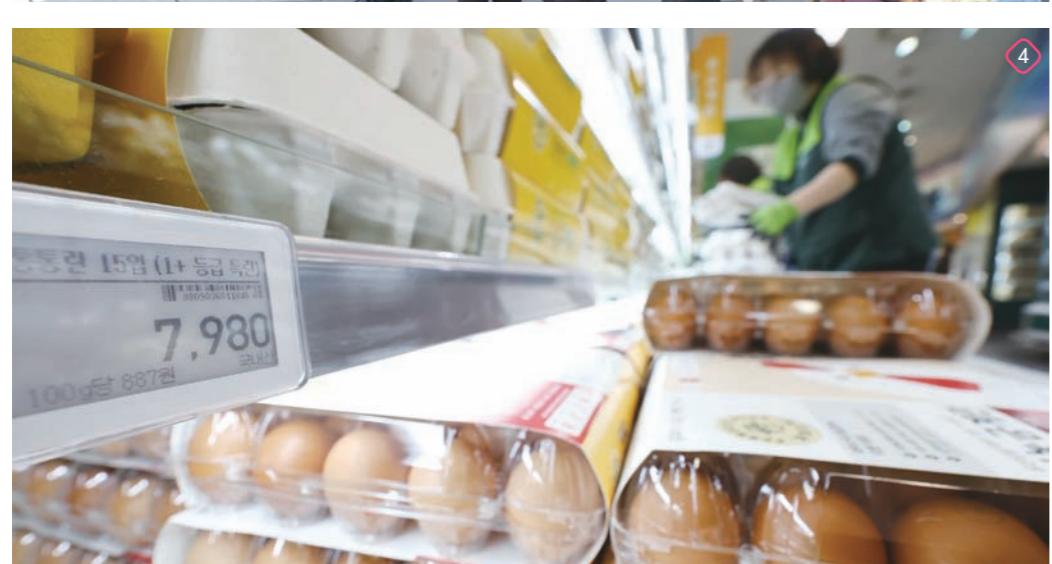




성탄절 명동… 안전사고 예방 총력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등 다중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4곳에 기동순찰대 340명을 보냈다.

[사진부=이종원·박미나 기자]



① ②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노숙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행사가 진행됐다.

③ 2025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가 크리스마스인 25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려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소외 계층에게 전달할 선물 상자를 수령하고 있다. 이날 1000여 명의 산타는 인천지역 소외 계층 2000가정에 겨울 이불, 생활용품 선물 세트, 떡국 밀키트 등으로 구성된 선물 상자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④ ⑤ 계란 특란 한 편(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서면서 값이 뛰는 가운데 2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계란이 놓여 있다. 올해 동절기 신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늘어난 11건으로 두 배가 넘어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